

목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 선발

표창·인사상 특전 부여

목포시가 불합리한 절차와 관행을 개선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각 부서 및 시민이 추천한 19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실무심사를 거쳐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난 20일 '2023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목포시장 표창과 인사상 특전(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인사가점 등)을 부여 받는다.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 인원은 모두 12명으로 팀장급 3명과 일선 주무관 9명이다.

▲전국제전추진단 천승환 팀장 ▲지역경제과 임희선 팀장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김현진 팀장 ▲관광과 정동현 주무관 ▲기획예산과 안민우 주무관 ▲공원녹지와 하지수 주무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김사무엘 주무관 ▲청년인구과 조민아 주무관 ▲자치행정과 김은실 주무관 ▲문화예술과 김선욱 주무관 ▲수도과 김수현 주무관 ▲만호동 박하나 주무관이 선정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을 통해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영암, 에너지취약계층 다양한 난방비 지원

연탄·등유·LPG·연탄 등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영암군은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요금 인상 등에 대응해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급한다.

세대별로 1인 27만 9000원, 2인 38만 1000원, 3인 52만 2000원, 4인 이상 69만 2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연탄바우처사업'은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지급하고,

세대 당 54만 6000원이다.

'취약계층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에는 차액만 지급한다.

'등유바우처사업'은 생계·의료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장에게 세대 당 64만 1000원을 지원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음·면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진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이 연말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14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은 안전문화운동의 하나로 어린이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에 안전교육을 의뢰해 생활안전교육과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안전교

육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화재발생에 꼭 필요한 소화기 사용법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안전의식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과 함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신안, 전국 최초 원스톱 통합복지플랫폼 오픈

‘행복더하기 통합복지카드’ 서비스 시작

교통·관광·생활시설 등 한번에 이용 가능

신안군은 지난 1일 관내 분야별로 분산된 복지 혜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한 통합복지플랫폼 '행복더하기 통합복지카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행복더하기 통합복지카드'는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다양한 복지 대상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분야별로 맞춤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 복지카드 발급과 카드 이용 및 조회까지 한 번에 제공되는 통합 복지 서비스이다.

현재 군민들이 버스, 택시, 도선 등을 이용 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카드를 신청 발급받아 종류별로 2~3장의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신안군에서도 관내 관광지, 공중목욕탕, 이·미용 등을 방문 시 이용객 데이터 집계가 어려워 군 복지정책 관리나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 통합복지카드 하나로 버스나 택시 등 교통 이용은 물론, 생활

밀집 시설(목욕탕, 식당, 이·미용 등)과 관광지 무료 혜택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복지 자격의 검증이나 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하는 것도 '행복더하기'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통이나 관광지 등 시설물별 기간, 나이, 지역, 가맹점별 이용객 현황 분석을 통해 신안군민의 맞춤형 복지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기술을 반영한 통합복지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되면, 하나의 통합복지카드로 관내 교통, 관광, 공중목욕탕, 식당 등 관내 생활 밀집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



해 스마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안=강홍복 기자

완도, 고향사랑기부제 2000여명 동참...홍보 효과 '톡톡'

11월 급증...연말 참여 늘어

완도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11월 이후 크게 늘면서 기부자가 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11월(27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건수가 300여건으로, 지난 10월 대비 2.5배 늘었다.

지난 1월 이후 완도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2000여명에 달한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기부자가 늘고 있는 것은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직장인 참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완도군이 타 시·군과의 상호기부를 위해 '맞춤형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지'를 제작·배부한 것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완도군 공직자를 비롯해 완도군의 회, 완도군산림조합, 완도농협, 소안수협, 금일을 이장단 등 유관기관·단체들도 상호 기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완도군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향우와 함께 인생네트 스티커 사진 찍기', '고향 사랑 추억의 뽑기', '삼삼한 완도사랑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전담제전, 슬로걷기축제,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 때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12월에도 고향사랑기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기관이나 타지역 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강진, 내년도 정부 보급종벼 종자 신청·접수 받아

강진군은 오는 12월 20일까지 내년도 벼농사에 필요한 정부 보급종벼 종자를 신청받는다.

이번에 보급될 종자는 새창무, 강대천, 백옥찰, 동진찰, 신동진, 영호진미 6개 품종 191톤이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따라 농약오염 방지 차원에서 신청하는 모든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로만 공급된다.

정부 보급종은 종자 검사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급종종자로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은 특징이 있으며 벼농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5kg/10a(300평)의 종자가 소요되며, 종자 신청 단위는 20kg/포이다.

신청은 마을별 이장을 통해 읍면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되고, 이번 신청 접수 받는 2023년산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은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확정일이 끝나는 2024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종자 보급은 내년 1~3월 중 품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역별 농협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정부 보급종은 발아율과 순도 검사 등 검사규격을 통과한 엄선된 종자로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나타나며 6% 정도의 중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기사번호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해남 '개체굴' 양식 성공... 이달 중순 출하

화산 중마도서 신소득 품종 개체굴 양식 눈길.....올해 61t 수확 예정

해남군의 땅끝청정바다에서 개체굴 양식에 성공해 출하를 앞두고 있다.

해남군은 화산면 중마어촌계와 함께 신소득 품종인 개체굴 양식을 추진, 6개월여의 양식기간을 거쳐 이달 중순 출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체굴은 여러 개체가 덩어리로 자라는 일반 굴에 비해 껍데기 하나에 한 개체만 자라도록 채종(그물망) 속에서 키우는 양식굴이다.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 일반굴에 비해 두배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해외수출 등으로 소비되는 고소득 품종으로 양식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알맹이만 판매하는 알굴과 달리 껍데기째로 판매해 박피작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해남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체굴 양식에 추진, 중마도 일원에 지난 5월 76만미를 첫 입식해 채종수확으로 양식에 성공했다.

채종 수확 방법은 따로 먹이를 줄 필요가 없어 바다 부영양화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수온 피해에 따른 폐사율도 낮아 개체굴 양식의 가장 적합한 양식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남군 개체굴은 현재 100g까지 성장했으며 생존율도 80%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약 61t의 개체굴을 수확해 국

내 판매 및 중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kg당 3500원, 약 2억 1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화산 중마도는 해남군의 대표적인 섬인 삼마도(삼마·중마·하마도)의 일부로 다도해의 청정 바다에서 김과 전복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중마어촌계의 성공적인 개체굴 양식으로 김과 전복 외에도 고소득양식품종을 추가하게 되어 어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 개체굴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고소득어업 소득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건강과 웰빙의 대표음식!

영암군 YEONGAM-GUN

달마지쌀 골드

대봉감

매력한우

무화과

영암멜론

영암배

황토고구마

황토수박

영암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